



‘아이리아’ 강혜경(왼쪽) 대표와 ‘빅 사이즈’의 문대근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다양한 작품을 함께 만들어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 ‘아이리아’ 강혜경
‘빅 사이즈’ 문대근 대표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데, 두 사람 다 포즈가 아주 자연스럽다. 딱 무대 체질이다.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강혜경(41) 대표와 댄스팀 ‘빅 사이즈’ 문대근(33) 대표는 2011년부터 함께 작품을 만드는 든든한 동료다.

“퓨전국악과 힙합 만나 신바람·춤바람 났죠”

2011년부터 ‘청춘 스케치’ ‘브랜드 뉴 아리랑’ 등 제작 세계 어느 클럽 누구라도 흔들 자신 있어 지역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만들 것

강 대표는 전남대 국악과에서 가야금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전남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 가야금 앙상블을 연구 모임 ‘꿈꾸는 나무’를 만들었고 이후 판을 키워 2008년 퓨전 국악그룹 ‘아이리아’를 창단했다. 가야금·대금·해금 등 전통 악기에 드럼·베이스 기타·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진 편성이다. 덕분에 전통 국악 뿐 아니라 재즈와 팝,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음악이 풍성해졌다.

문 대표는 영암과 합천 ‘베가세븐’에서 활동했다. 본인 말대로라면 시골 팀이었지만 광주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스무 세살 때부터는 프로 댄서 됐다. 광주 총장로 소풍물 밀리오레 무대에서 화려한 춤 솜씨를 발휘했고 각종 대회에서도 수상했다.

miss

A'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중인 수지를 가르치기도 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한 이는 강 대표였다. 지난 2011년 아이리아 송년 공연 ‘광주8경’을 준비하던 강 대표는 웅장한 창작곡 ‘빛의 나라’를 위촉해 둔 상태였다.

“큰 작품을 준비하다 보니 기존의 연주 형태와 다른 퍼포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광주를 이야기하는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했죠. 예전 축제 행사 등에서 본 문대표가 생각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과 국악을 접목시키는 것, 전통과 대중들의 기호를 어떻게 이어갈까 생각이 많았던 때라 바로 함께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문 대표의 열린 마인드가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마침 문 대표는 제안을 받기 몇년 전 안동탈춤페스티벌에 참여하며 퓨전 국악음악을 믹싱해 힙합 비트를 입혀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작업은 매년 이어졌다. 2012년에는 군부대 순회 공연 ‘청춘 스케치’를 1년 내내 함께 했다. 2013년 ‘아리랑 파티’는 일렉트로닉 음악을 접목하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브랜드 뉴 아리랑’을 무대에 올렸고, 올해는 ‘국악, 춤바람 나다’에서 호흡을 맞춘다.

“보통 힙합 비트는 반복의 연속이죠. 춤도 강하고 과격해요. 반면 국악은 라이브 연주로 들었을 때 다양하게 변화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느린 춤을 출 때는 주로 R & B 음악에 맞춰 춤을 쳤어요. 국악으로 연주되는 ‘사랑가’ 처럼 애절한 느낌의 느린 노래들에 맞춰 춤을 추는데 전혀 다른 느낌

이었습니다. 전 제가 국악을 그렇게 좋아하는줄 몰랐어요(웃음). 현대적 색을 입은 국악은 감성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 녹음된 음악을 틀어놓고 공연을 하다보니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 내가 저 집중하고 긴장하게 되요. 춤도 말 그대로 라이브가 되는 거죠.”(문대근)

두 사람이 꼽은 인상에 남는 공연은 지난해 열렸던 ‘브랜드 뉴 아리랑’의 피날레 무대. 지역의 대표 타악 연주 단체인 ‘얼쭈’와 ‘빅 사이즈’가 함께 장식한 무대는 압도적이었다.

“얼쭈팀의 사물놀이 ‘선반’과 붙었는데 힙합에서 배틀을 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걸고 무대에 섰죠. 눈치싸움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 상모 몇바퀴 돌리면 우리는 또 강한 춤으로 나가고 이런 식이에요.”(문대근)

강 대표는 “두 팀이 무대에서 춤과 연희로 불는데 굉장하고 멋졌다”며 “세계 어느 클럽에서 공연을 해도 누구나 흔들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창작 활동은 어찌보면 마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경주의 ‘미소’ 시리즈처럼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상품을 만드는 것, 무형의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생각이 많아요.”(강혜경)

현재 고려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강 대표는 “국악에 머물지 않고 장르가 확장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빅사이즈 멤버는 여성들이다. 힙합,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와 함께 ‘컨셉’ 댄스도 주 레퍼토리다. ‘무한도전 토도가’ 처럼 7080 고고장 컨셉으로 스토리가 있는 춤을 선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스텝틱 코미디를 기조로 한 ‘웃기는’ 작품도 구상중이다.

아이리아는 올해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공연장 상주 사업과 광산구청과 함께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참여한다.

두 팀은 전국 공모 사업에 광주의 전통음식을 소재로 한 북고풍 댄스컬 작품을 응모해 둔 상태다. 음식과 춤과 국악이 어우러진 ‘맛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실험 요소 더한 ‘보이책’

극단 ‘연병’ 12~15일 총장로 기분좋은 극장

극단 ‘연병’은 지난 2013년 결성된 젊은 단체다. ‘연극에 병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극단 이름은 젊은 열기 가득한 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작품을 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었다. 청주대 연극과 출신 연출가 김용호씨 등 각 대학 연극영화과 20대 젊은 배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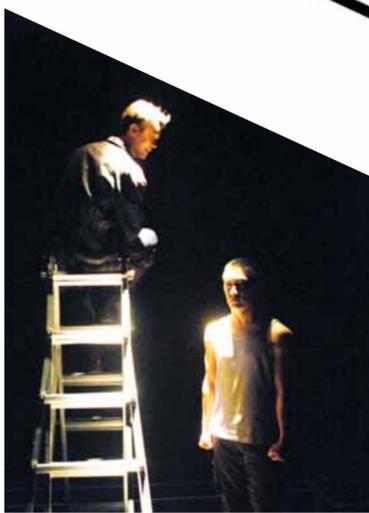
2013년 창단 작품으로 ‘옆집 여자’를 3차례 앙코르 공연을 했던 ‘연병’이 두 번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스물 다섯에 요절한 독일 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연극 ‘보이책’이다. 12~15일(평일 오후 8시·주말 오후 4시·7시) 광주 총장로 기분좋은 극장.

전 세계 연극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아온 ‘보이책’은 일단 군인 보이책이 연인 마리와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군에서 진행되는 생체 실험에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연상의 내연녀를 살해한 뒤 사형당한 동명의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도 하다.

원작은 김용호 연출이 각색했다. 남자 배우가 여자 마리를 연기하며 미니멀한 무대 장치와 함께 다양한 움직임, 안무를 가미했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고 요즘 유행하는 로맨틱 장르와 다른 연극을 올리고 싶어 선택했다. 게오르크 뷔히너가 세상을 떠난 게 스물 다섯이다. 지금 딱 우리 나이다. 나를 포함해 배우들 모두 스물 다섯이다. 원작을 해체하고 실험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김용호 연출의 말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 5000원, 문의 010-3172-20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이책’ 한 장면.



‘볼 코스터’

양모 펠트 공예품 만들기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 13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3일까지 ‘박물관 규방·양모 펠트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올미년 양미해를 맞아 천연양모를 소재로 공예품을 창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5월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박물관 교육관 체험학습실에서 13차례

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천연 양모를 활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공예가 변은숙씨가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통 문화 속 이미지를 참고해 ‘오방색을 이용한 볼 코스터’, ‘티슈박스’, ‘양모 볼 활용 양 옆쇠고리’, ‘전통문양이 들어간 동전지갑’, ‘오방색 펠트 가방’ 등을 만들게 된다. 수강 인원은 25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570-7053, 706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